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www.PapaCambridge.com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October/November 2010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7** printed pages and **1** blank page.



Part 1

Passage 1을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1에 모두 답하십시오.

Passage 1

아래 글은 박완서의 단편 소설 <그 여자네 집>의 일부분입니다. 글쓴이는 일제 말기 고향 마을에 살던 곱단이와 만득이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회상하는데, 소설의 결말에서는 정신대 할머니를 돕는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장만득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1945년 봄에도 행촌리에 살구꽃 피고, 파리꽃, 오랑캐꽃, 자운영이 피었을까. 그럴 리 없건만 괜히 안 피고 말았을 거 같다. 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만득이와 곱단이의 연애도 끝나고 말았을까. 만학이었던 만득이는 읍내의 사년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으로 끌려나갔다. 며칠 간의 여유는 있었고 양가에서는 그 사이에 혼사를 치르려고 했다. 연애 못 걸어 본 총각도 씨라도 남기려고 서둘러 혼처를 구해 혼사를 치르는 일이 흔할 때였다. 더군다나 만득이는 외아들이었고 사주단자는 건네지 않았어도 서로 연애 건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아는 각깃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혼사 치르기를 거부했다. 그건 그의 사랑법이었을 것이다. 남들이 다 안 알아줘도 곱단이한테만은 그의 사랑법을 이해시키려고, 잔설이 아직 남아 있는 이른 봄의 으스스름 달밤을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곱단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곱단이가 그의 제안에 마음으로부터 승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끌려다니지를 앓고 어디 방앗간 같은 데서 밤을 지냈다고 해도 만득이의 손길이 곱단이의 젖가슴도 범하질 못하였으리라는 걸 곱단이의 부모도, 마을 사람들도 믿었다. 그런 시대였다. 순결한 시대였는지, 바보 같은 시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존중한 법도라는 건 그런 거였다. 5 10 15

<중략>

만득이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마을에 남자라고는 중늬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곱단이 오빠들도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한 셋째 오빠와 부모님을 모시는 큰오빠 빼고 두 오빠가 징용으로 나가 아들 부잣집이 허락해졌다. 장정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식 공출도 극악해져 그 풍요하던 마을도 앞으로 넘길 보릿고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굶은 날 부침질만 해도 서로 나누느라 한 채반은 부쳐야 했던 인심도 스스로 금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주 나쁜 소식이 염병보다 더 흉흉하고 건잡을 수 없이 온 동네를 휩쓸었다. 전에도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본토나 남양 군도에 가서 일하고 싶은 처녀들은 지 20 25

원하면 보내주고 나중에 집에 송금도 할 수 있다는 면사무소의 공문이 한바탕 돈 후였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설마 돈별이를 강제로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짐작을 못 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그게 아니어서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무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과년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가 는 일까지 있다고 했다.

30

<중략>

도시에서 군수 공장에 다니는 곱단이 오빠가 종아리에 각반을 차고 징 달린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신의주에 있는 중요한 공사판에서 측량 기사로 있는, 한번 장가 갔던 남자라고 했다. 곱단이 부모로부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구해 온 곱단이 신랑감이었다. 첫 장가 든 부인이 십년이 가깝도록 아이를 못 낳아 내치고, 새장가를 든다는 그는 곱단이의 그 고운 얼굴보다는 별로 크지 않은 엉덩이만 유심히 보면서, 글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연방 고개를 가우뚱, 그닥 탐탐치 않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총각이 씨가 마른 시대였다. 게다가 지금 그 늙은 신랑감이 하고 있는 일은 군사적인 중요한 일이라 징용은 절로 면제된다고 한다. 곱단이네는 그 고운 딸을 번갯불에 콩 귀 먹듯이 그 재취 자리로 보내 버렸다.

35

40

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그 혼사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회까닥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피 묻은 소문도 마찬가지로였다. 곱단이네 식구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만득이와 곱단이의 연애를 어여뻐 여기고 스스로 증인이 된 마을 어른들도 이제 곱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군한테 내주지 않는 일뿐이었다. 더군다나 곱단이 어머니는 피가 무서워 닭 모가지 하나 못 비트는 착하디착한 위인이었다. 그 피 묻은 소문에 살이 떨려 우두망찰했을 것이다. 곱단이는 만득이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넋을 놓아버리는 게 고작이었을 것이다. 곱단이네서 혼사를 치르고 사흘 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는 곱단이는 사자(死者)를 분단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곤 없었다.

45

50

멀고 먼 신의주로 시집 가 첫 근친도 오기 전에 해방이 되었다. 그녀는 열아홉에 떠나 지붕 노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고장은 아슬아슬하게 38이남이 되어 북조선의 신의주와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만득이는 살아서 돌아왔다. 그 이듬해 봄 만득이는 같은 행촌리 처녀인 순애와 혼사를 치렀다. 순애는 투덕투덕 복 있게 생긴 처녀였지만 곱단이에겐 델 것도 아니었다. 혼사 날 마을 풍속대로 신랑을 달았는데 군대나 징용 갔다가 심성이 거칠 대로 거칠어져 돌아온 청년들이 어찌나 호되게 신랑 발바닥을 때렸던지 만득이가 영영 울었다

55

고 한다. 만득이 또한 군대 가서 고초를 겪을 만큼 겪었는데 그까짓 장난 삼아 치는 매를 못 견디어 울었을까? 울고 싶어, 실컷 울고 싶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만득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곱단이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싶은 게 아직도 두 사람의 어여쁜 사랑을 못 잊어 하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이었으니 그리로 시집간 순애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금실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곧 서울로 세상을 났다. 외아들이었지만 서울 누나가 동생의 일자리를 구해 놓고 데려갔다. 60 65

<중략>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글썄요, 내가 한 짓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아마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잡지에서 정신대 문제를 애써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분통이 터진 것과 관계가 있겠죠.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수적으로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어요. 범죄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곱단이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곱단이가 탄 데로 시집 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한에다 그걸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어요.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면하긴 했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들 했나요?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어떨결에 십 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질식시켜 버리니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장만득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졌다. 70 75 80

- 1 Passage 1을 읽고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을 쓸 때에는 가능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문장으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 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5=25 점입니다.)

- (a) line 7-8에서 '온 동네가 다 아는 각설탕'은 누구인지 쓰십시오. [1]
- (b) line 8에서 만득이가 '한사코 혼사치르기를 거부'한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1]
- (c) line 15-16에서 '그때 우리가 존중한 법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1]
- (d) line 20에서 '아들 부잣집이 허락해졌다'는 무슨 뜻인지 쓰십시오. [1]
- (e) line 22-23에서 '인심도 스스로 금가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1]
- (f) line 35-37에서 중년 남자는 곱단이를 신부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2]
- (g) line 39-40에서 곱단이네가 고운 딸을 번갯불에 콩 귀 먹듯이 재취자리로 시집 보낸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서 쓰십시오. [2]
- (h) line 51에서 곱단이가 시집가는 날 '사자(死者)를 분단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2]
- (i) line 58에서 혼사 날 '만득이가 영영' 울었던 속마음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2]
- (j) line 62-63에서 왜 '시집간 순애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십시오. [1]
- (k) line 75-77에서 '강도'와 '강도의 폭력을 피하려고 어쩔결에 십층에서 뛰어내려 죽은 사람'은 각각 무엇을 비유하는지 쓰십시오. [2]
- (l) line 79-80에서 장만득 씨가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당한 자의 한'은 무엇이고 '면한 자의 분노'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하고, 그 둘을 보태고 싶은 장만득 씨의 마음이란 어떤 뜻인지 작품 전체와 결말 부분을 읽고 자신의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4]

Part 2

Passage 2를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2에 답하십시오.

Passage 2

다음은 박은봉의 <한 권으로 보는 한국사 100 장면> 중 일부입니다.

조선 여성의 강제 연행은 1944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조선 처녀들을 만주로 끌고 가서 매춘부로 만들었고 중일전쟁 후부터는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그리고 중국 대륙에 진출한 일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장으로 위안소로 보내졌다. 여자정신근로령은 이미 있어온 강제 연행을 합법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동원된 조선 여성의 숫자는 무려 20여 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군부대에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다. 공장에 배치되었다가 다시 위안부로 끌려간 경우도 많다. 5

<중략>

종군위안부는 만주, 중국대륙, 필리핀, 오키나와, 홋카이도, 파푸아뉴기니 등 일본군의 전선에 따라 배치되었다. 종군위안부는 천황이 '성전'을 치르는 일본군에게 내린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이 끝나자 그 자취를 지우려는 일제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참호나 동굴에 모아놓고 폭파시켜 몰살시키기도 하고, 배에 실어 기뢰에 부딪히게 해서 수백 명을 수장시키기도 했다. 그럴 여유조차 없는 경우에는 그냥 현지에 버리고 떠났다. 버려진 위안부들은 미군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10

1992년 2월부터 4개월간 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정신대 피해자는 319명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 또한 많다. 북한에도 1992년 12월 현재 123명이 생존해 있다 한다. 15

일제는 조선 여성들뿐 아니라 징용 징병으로 수십만의 조선 젊은이들을 동원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의 징용자 총수는 113만명, 146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중 홋카이도에 끌려간 조선인은 약 20만에서 50만으로 추산되는데, '비행장 바닥에 조선인 시체가 깔려 있고 철도의 침목 하나 하나가 바로 조선인 노동자'라고 할 정도로 희생이 심했다. 종군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징용 노동자들도 집단 학살당했다. 쿠릴 열도에서는 약 5,000여명,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는 800여 명이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했다. 20

패전 후 일본 도쿄에서는 극동군재판소(IMTFE)가 열렸다. 일본군부 지도자, 각료, 정치인 26명이 법정에 섰다. 그보다 6개월 먼저 뉘른베르크에서도 전범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도쿄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질적으로 달랐다. 뉘른베르크에서는 나치스의 조직적 범죄가 철저히 폭로된 반면 도쿄에서는 피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이는 일본의 죄악과 책임을 경감시키는 조치였다. 또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다. 냉전으로 돌입하고 있던 국제 정치상황이 일본 전범 재판을 축소시킨 것이다. 정신대와 강제 징용 문제는 은폐된 채로 넘어갔다. 30

“우리들은 전후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에 대한 약속과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 93년 2월 미야자와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1965년 맺은 한일기본협정에서 전후 처리와 배상 문제를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정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정신대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가운데 7% 정도만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경제개발에 투입했다. 정신대 문제는 다시 묻혀졌다. 35

최근 일본을 향의 방문한 정신대 출신 할머니에게 일본인 기자가 보상금으로 얼마를 원하는가 질문했다. 그녀는 분노하여 소리쳤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돌려달라는 거야!” 40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강제 징용자, 정신대, 군인으로 끌려간 청년들, 이들의 진혼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 전범자 처벌, 희생자에 대한 보상, 다음 세대에 대한 바른 역사 교육,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2 Passage 1과 Passage 2를 잘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5 marks]

Passage 1에 나오는 만득이와 곽단이의 삶이 Passage 2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주인공의 일생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각각 요약 정리하십시오.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점, 언어의 정확성에 5점)

Copyright Acknowledgements:

Question 1	© Wan Suh Park; <i>The Loneliness of You</i> ; Changbi Publishers Inc.; 1998.
Question 2	© Eun Bong Park; <i>Han gwonŭro bonŭn Hanguksa 100 jangmyon</i> ; Garam Gihok; 1993.
Question 2	© Eun Bong Park; <i>Hanguksa 100 jangmyon</i> ; Silcheon Munhaksa; 1997.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